東大新聞

發行人 鄭在覺
編輯人 鄭允武
印刷人 方又燮
主幹 洪起三
編輯局長 洪申善
編輯部長 韓萬洙

發行所
우편번호 100
서울시 中區 筆洞3街26
東國大學校內
東大新聞社
電話交換 ☎ 8131~9
本社直通 ☎ 8577

每週火曜日發行

今週一言

見聖人快,
得依附快,
得離愚人,
爲善獨快.

거룩한 사람을 보는 것 즐겁고 거룩한 사람 섬기는 것 즐겁다. 어리석은 사람을 떠날수 있어 착한 일 행해 혼자섬 즐겁다.

<法句經>

# 人文社會系, 수학 I 必須로

## 豫試 百% 가산, 慶州大 동일

1980학년도 新入生 選抜要綱이 지난 6월26일열린 학처장회의에서 確定발표되었다. 이 要綱에 따르면 考査期間은 80년 2월 5일부터 6일까지 2일간 後期로 銓衡하며, 시험科目은 人文社會系의 경우 79학년도에 선택과목이었던 數學(I)이 필수과목으로 변경되었으며 自然科學系의 경우 數學(II)는 변동없다. 그밖에 79학년도 선택과목이었던 國史과목은 폐지되었다. 또한 예시성적 우수자에 대한 특별전형은 전과목에 걸쳐 정원의 20%내에서 실시되며 예비고사성적은 79학년도와 같이 총원의 53%(100%가산)를 가산한다. 한편 慶州分校는 고사기간이 80년 1월 16일부터 2일간 前期로 전형하며 입시요강은 서울본교와 同一하다.

## 本校 入試要綱 확정

고사과목은 일본사회는 이며 자연과학계 경우 국어(I)·영어·수학(I)이며 자연과학계 경우 국어(I)·영어·수학(II)로 전형하며 예체능계의 경우 연영·체교과는 국어·영어·실기로 미술과는 실기점수만으로 전형하며 작년과동일하다.

필기시험의 배점은 종과목당 100점만점이며 서술형 주관식 70%와 선다형 객관식 30%로 출제된다. 예비고사성적 반영은 79학년도와같이 100%가산(3백40점 전체의 53%)하며종점은 6백40점만점이다.

한편 실업계및 체육계고등학교에서 동일계학과를지원할 경우는 필기시험을면제하고 예비고사성적 90%(306점)에 내신성적과 면접시험 10%(34점)으로 사정한다. 다음 예비고사성적우수자에 대한 특별전형은 다음과 같이실시된다.

①전학과에 걸쳐 학과정원20% 내에서 예비고사성적우수자를 특별전형한다.

②전형방법은 대학입학예비고사성적과 면접으로전형한다.

한편 慶州分校의 경우전형방법은 서울과 同一하며 고사과목은 전학과가 국어(I) 영어·수학(I)로전형한다. (단 한의예과는수학(I)대신 수학(II)로 하며 불교미술과는 필기시험없이 실기로 전형한다.)

## 故金박사詩碑제막

### 物理科後學 뜻모아

지난 7월21일(土) 옹인 꽁원묘지에서 학문을 다 못이루고 작고한 故 金鎭玉박사의 일부기를 맞아 고 인의 뜻을 계승하기 위한 시비제막식이 있었다.

본교 물리학과 洪敎裕(물교 문대 물리학과) 교수등, 金박사의 後學으로서 물리학과 대학원 박사과정 이수 및 재학생 12명이 모여 생존 선생이 시비는 미당 서정주 선생이 시문을 썼으며 가로3자1치 세로 2자의 규모이다.

## 時計 새로설치

### 석조관·교양학관에

충무처 관재과에서는 학생복지회관 앞의 시계탑을 철거, 학생들의 정서적인 시간 활용을 위해 석조관및 G관(교양학관) 전등에 시계를 새로이 설치할 예정이다.

또한학생회관옆에어지렵게 놓여있던옛 물체門(졸업 정문)의 초석을 이용, G건물과 전자계산소 사이의 돌계단및 주위도 아늑한 분위기로 미화하게 된다.

## "日本學 硏究所"案

### 재단이사회 承認 남아

본교 부설 日本學硏究所 신설계획에 따라 「文部소위원회」가 구성되어 지난7월12일 회합을 가졌고 日本學硏究所 규정안을 마련했다.

규정안에 따르면 同연구소는 日本의 歷史, 文化, 社會를 연구하여 상호이해와 文化交流에 공헌함을 목적으로 하며 본교 교수뿐만 아니라 國外 人士로서 客員敎授 또는 객원연구員을위촉할수있게하였다.

## 敎職員 學生 등 참가

### 1學期 마무리하는 夏季放學

○○○

# 奉仕活動에대한理解와關心

社說

해마다 여름放學과 겨울放學이 되면 많은 대학생들이 낙후한 農漁村에 뛰어들어 봉사활동을 전개한다. 이번 여름방학에는 전국의 27개 종합대학과 단과대학, 교육대학 등 2백5개의 대학에서 3만천명의 학생들이 58개의 농어촌지역에 들어가 내지 10일 동안 奉仕活動을 벌인다.

우리학교에서도 7개의 써클에서 2백20명의 學生들이 지난 13일부터 이달 28일까지 忠北 報恩군 7개의 자연부락을 대상으로하여 각 써클별로 소정기간 동안의 봉사활동을 마쳤다.

먼저 퍼약낼과 무덤위속에서 활동하는 奉仕精神과 勞苦를 겪려해 마지 않는다.

여기서 대학생들의 농어촌을 대상으로 한 봉사활동의 意義는 무엇이며 그들이 이 사회를 위하여 기여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볼 必要性과 기여도를생각하기에 앞서 이들의 奉仕精神이 얼마가 욱하고 참된 것인지를 알지 않으면 안된다.

봉사활동 대상지역은 대체로 산간벽지이거나 낙도이기 때문에도 시 사람들은 상상하기 어려울 만치 교통이 불편하다. 원만한 사람은 奉仕活動은 고사하고 이런 벽지에 한번 다녀온다는 사실속자 쉬운 일이 아니다. 도착하여 하는 일은 더욱 어렵고 힘들다. 낮에는 이른 아침부터 저녁까지 농사일과 마을청소하기등 農漁民들을 위한 勞力봉사를 하고 저녁에는 각기 맡은바, 부서별로 농민들과 談話를 나눈다. 이들의 日程은 너무나 바쁘고 고단하여 自然과 農村의 실정을 생각할 여유조차 없다. 봉사단 학생들은 찾아가기조차 힘든 벽촌을 스스로 선택했으며 도시인으로선는 해내기 어려운 고된 농어촌사업을 스스로 자원하고 나선 학생들이다.

요즈음과 같이 개인주의와 이기주의, 향락주의가 팽만하여 사치와 낭비와 퇴폐행위등 복지사회를 좀먹는 사회병인현상이 만연되 이시 운 봉사정신을 가진 젊은이들이었다는 것은 여간 다행스럽고 믿음직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들은 적어도 자기 혼자만 잘 살면 그만이라는 생각을 갖지 않았으며 이웃과는 더불어 함께 잘살아야겠다는 사명감을 가진 젊은이들이다. 그러기에 이들은 이웃의苦를 덜는다는 차원으로 이해하기가 쉽다. 그러나 이들이 하는 일은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노력 봉사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노력사업을 통한 농어민의 대화에 있는것이다.

농어민들과의 대화를 통하여 농어민들의 전통적 가치관을 점차합리적 가치관으로 이행되도록 노력하고 과학적 인식을 높이게되고 에따라 농어민들의 세계관은 새로 된 地域社會로부터 점차 시야를넓히게 된다.

세계적인 경제학자 로스토우는한 나라의 경제가 발전되고 도약하는데 있어 자본과 이익보다도 근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사회적 자세등 광범한 社會變化를 위한 사회적 자세등 광범한 社會變化가 더 중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봉사단들이 하고있는 일들이 곧 이들의 奉仕精神이 욱하고 참된 것인지를 알 수 있는 바로 이 점에 있는 것이다.

일제시대의 학생들의 봉사활동은 民族的 自覺을 계몽하여 우리민족으로 하여금 일제에 항거하고 獨立을 쟁취하는데 큰 힘을 발휘했으며 해방후 자유당정부 시기에는 문맹을 퇴치하여 國民을 무지로부터 解放시키는데 지대한 공헌을 했음을 부인할 도리는 없다.

오늘날의 奉仕活動은 近代化 과정에서 빚어지는 도시와 농촌의 심각한 이중구조 속에서 國民的 일체감을 형성하고 근대화를 수용하고 추진할 수 있는 사회적 姿勢를 확립하는데 있어 아무도 대신할 수 없는 중요한 일을 감당하고 있는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무덤위와 퍼약낼 사활활동을 자원하고 나선 봉사단학생들이야말로 이 사회가 잘구하고있는 소수한 젊은 엘리트들이며 이들의 봉사활동은 매우 뜻있고값진 것이다.

이 기회에 책임있는 모든 담당자들은 大學生 농어촌 봉사단들의 노고를 올바르이해하고격려하며 보다적극적인 關心을 가져주기 바라는바 다음 해에는 이들의 奉仕精神이 문무부가 모저절 다려한 맑음법의 試案을 놓고 뜨거운 토론을 벌였다. 이번 문무부가 마련한 試案은 지난 1일 문교부 대학교육심의위원회에 제출되어 서로 신청하는 후보자 수가 1천5백명에 달하자 교무위원회에서 논문으로 대학지만 교수 1백명이 나서 결정하는 것이다.

그래서 9월에 입학하려는 8백명이 다시 필답시험에응시하여 약4백명이 낙제된다. 이들은 처음으로 자기 전공과목에 일차등록을 하게되는데 그후 다시 전공과목 시험을 보게된다. 거기에서 최후로남는 합격자는2백명에 해당되는 소수이며 이들이 비로소 大學院 專攻과에 등록을 할수있는 자격을 얻게되는 것이다.

그다음 10月에 일차면접을 해 담교수들과 하게되고 11월에 처음으로 교수와 학생이 강의에들어가며 다음해 4月까지는 그간에 전공한 論文을 제출하여야하며 그사이에 또 중간고사에 응하여야한다. 만족한 점수를 취득하여야 학년이 끝나서 다시 전공과목 시험을 보게된다. 이때 에 해당되는 합격자는2명이 대학원 入學許可를 받게되는 등 등 등

本紙記者 奉仕活動 現地 취재기

# 젊음의 순수한 땀방울

## 휴의 철학을 배우려는 意志

### "전문·실질적인 奉仕로" 주민반응

### 매너리즘 탈피… 의료봉사 아쉬워

카페 椅子에 걸터 앉아서 희고 흰 팔을 팔베여 가며 「우 나르도」라고 떠들고 있는 ……(中略)……

넉희들의 손이 너무 희고나.

1920년대 일제기 어느 시인은 헬록과 사고의 피를 이렇게 노래하며 대중 속으로 파고 들자는 주민들은 「V. Narod」 운동의 인테리를 중자했지만 반세기 뒤의 오늘날 每年 放學期면 우리 젊은 每年 大學生들은 자기의 再發見 및 낙후된 農村社會의 啓蒙이라는 숙로 우건을 내걸고 각기의 奉仕地로 발걸음을 옮긴다.

올해도 本校에서는 새마을 부 산하 7개서클의 총 2백20명 (남학생 1백65명 여학생55명) 이 참가, 지난 7월11일부터 충북보은 現地에서, 각지역의 특성을 려해 부녀반, 아동반, 청장년반, 야학반, 근로반을 편성, 각기 실한 現地 활동을 벌였다.

이렇게 하루를 보낸 후면 반드시 봉사대는 자체 評議會를 갖고, 진지한 토의를 벌였다. 피곤함중에도 의욕 극적인 방침모색으로 갖추 어려운 점을 갖는것은 역시 장년층에 강요로 눈에 안 띄는 농촌의 장요로 눈에 안 띄는 농촌의 먼지 자욱한 도로와 농가 보이는 데밭이 역력했다.

아마도 이러한 도시와 농촌간의 정신 적 거리가 상호간의 대화로 메꾸어나가야한다는 점 와 봉사활동의 한 문제 려움과 고통을 옷음으로 대 하거나 소감을 피력하는데 에서 봉사활동의 한 문제 다. 이제 초기의 정착단계 를 지나 進步, 發展의 단 계에 들어선 봉사 활동은 기본적인 개선 및 근본봉사의 영역에서 해어 나가는 실지 않을 것이며 이울러 都農間의 더럽혀 현실을 날을것 같다.

저희년학…단순한 근로봉사단계 또한가지 봉사단원의 저 는 농촌에서 봉사를 해야하는농 촌주민들의 先入感을 학생들의 는 경험에 의한 한 분 견손하고 조심스럽 노크에 을 응답하려 하질 않고 있었 고, 마을자체에서도 청년층 반결 적 장년층에는 억척스러운 경 장년층의 장요로 눈에 안 보이는 데밭이 역력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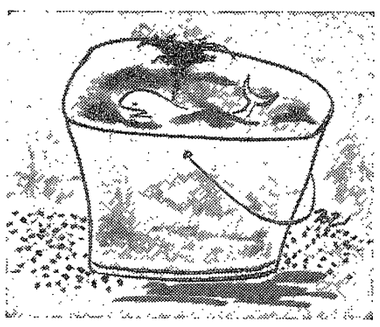
아마도 이러한 도시와 농 촌간의 정신 적 거리가 상호간의 대화로 메꾸어나가야한다는 점 적인 문제점의 제시보다 적인 것은 상호간의 대화 로 메꾸어나가야한다는 점 에서 봉사활동의 한 문제 려움과 고통을 제시하는 것이 됐다.

이제 초기의 정착단계 를 지나 進步, 發展의 단 계에 들어선 봉사 활동은 기본적인 개선 및 근본봉사의 영역에서 해어 나가는 실지 않을 것이며 이울러 都農間의 더럽혀 진

# 해는 떨고지고

구본희

여름꽁뜨



여기 20도쯤 경사진 비탈길을 려널려멀 내려오는 친구가 하나 있다. 비탈길을 내려올때는 시선이 자연히 아래쪽으로 향하게 된다는 것은 누구에게나 일어나는 보편적인 현상이다. 이런 사실에 미처 주의가 못 미쳤던 사람이라도 비탈길을 한번쯤 걸어 내려와본 사람이면 누구나 쉽게 수긍할것이다. 그런데 이 친구가 비탈길을 내려오는 모습을 바라보면 인간의 이런 보편적인 현상을 마치 거부라도 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허공을 헤매는 듯한 몽롱한 시선과 함께 떡 은 위쪽으로 틀려져있고 맥빠진 걸음걸이는 걷는다기 보다는 다리를 되는대로 던져놓는다는 표현이 더들어 맞을 것이다.

수영 팬티 차림에 길거리에서 아무렇게나 사서 걸친듯한 싸구려 남방과 짧속히 놀려쓴 썬캡 그리고 흰색 흐루라기를 하나 그는 목에 걸고있다. 얼마간의 차이는 있지만 이런차림새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이다. 우리가 그에게 친구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지만 사실 그는 우리의 동료이다. 우리는이곳 천국 해수욕장에 고용된 구조원들인 것이다.

저 친구가 걸어 내려오고있는 비탈길의 곡더기에 무엇이 있는 지는 우리들은 몰랐어도 이해수욕장의 우리들은 누구나 알고있다. 그곳에는 천국 해수욕장의 관리 사무실이 있고 그 안에는 관리인 영감이 파이프를 입에 문 채 「꿈과 낭만의 천국 해수욕장」이란 삭투적인 문구가 들어있는 포스터 앞에서 졸고 있다. 우리가 처음 이 해수욕장에와서 관리 사무실의 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이곳에 오는 모든 사람은 우선 관리 사무실에 등록을 해야만 한다—

우리들의 목적은 일반적인 모든 피서객과 동일했다. 바로 피서가 우리의 목적이었다. 이 해수욕장에서 익사사고가 빈발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는 잘 알고있었다. 그래서 우리들중의 한 친구가 『천국 해수욕장이라…그것 참 암시적인 이름인데』라고 말했을때 그것은 별로 이상한 말은 아니었다. 『암시적이라기 보다는 적절이지 않을까?』 하고 또 다른 한 친구가 말했으며 우리가 암시적이니 적절적이니하는 것으로 골머리를 썩히고 있을 때 『친애하는 구조원 여러분』이란 아주 커다란 관리인 영감의 목소리를 듣게 되었던 것이다. 이렇게해서 우리들은 이곳 천국 해수욕장의 구조원으로 고용되었다.

우리들이 이곳의 구조원으로 고용되기 이전부터 구조원 노릇을 하던 사람이 하나 있다. 지금 비탈길을 내려오는 친구가 바로 그 사람이다. 『여이, 어떻게 됐나?』 우리들 중의 한 친구가 묻고있지만 물어보나마나 뻔한 일이라는 걸 알아오는는 갈때기 떼연』라고 의 한 친구가 『태양을 등지고 곧은 바다가 없어져서 그래서 그 다음은 어떻게 되었느냐 고는 묻지말아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있는 우리들로서는 도통 믿기지 않는 노릇이고 지금 우리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하니까 말이다. 어쨌든 우리는 애초의 목적 대로 울퍼블루로 온몸을 번쩍이면서 해변가—이곳은 바다가 있는 진짜 해변가다. 를 거닐고있다.

〈문리대 국문과〉

# 하늘考

하 충 현

모두 다 떠나버린
窓에는
아슴히 사라지는
빈 하늘만 걸려 있다.
古風한 달빛
푸른 울음을 하나 들
걸어 먹으며
까치새끼는 하늘로 기어 오른다.

바람이 분다
하늘이 울렁거린다
창이 흔들린다
느티나무에 매어 놓은 하늘
어둠은
동녘부터 무너져 내리고
느긋해진 달 모퉁이에
햇살이 반짝인다.

出家한 아들의 목소리
에미의 맨발로 내려선 뜨락엔
벌써
여름이 턱까지 와 차고 있었다.

〈경주대 국문과〉

『그 친구, 주머니에 바다만 넣어간게 아니라 천국 해수욕장의 우리들 일자리까지 가져가 버렸군』

社會正義論
존 롤즈 著

美「하버드」大의 철학교수「롤즈」박사는 58年「公正으로서의正義」라는 논문을 발표한 후 줄곧 사회정의론의 현대적 해석에관심을 나타내고 있다.

이 책은 한번도 실현된 적은 없지만 영원히 단념할 수 없는 사회의 正義를 깊이 있게 성찰하고 있다. <서광사刊·3,500원>

찬란한 離陸
姜維一 著

姜維一의 長篇小說「찬란한 離陸」이 文藝出版社에서 나왔다. 「배우수업」의 작가 姜維一이 내놓은 또 하나의 문제작인 이책은 웃음과 우울한 假面위에 흡수며, 타래실처럼 풀려나가는 主人公의 젊은 영혼, 그리고 뿌리없는 사랑에 몸부림치는 都市人의 내면을 파헤치고 있다.

<文藝出版社刊·1,500원>

우리들의 사랑法
「문학과 지성」問題詩選

계간지「文學과 知性」에 창간이래 실렸던 朴斗千 外21명의 문제작가의 詩 작품이 평론가 6人에 의해 선정, 재수록된「우리들의 사랑法」이 도서출판 문장사에서 발간되었다.




이 책에 수록된 작품 속에서 70년 이후 우리의 시가 어떻게 변모해 왔는가를 엿볼수 있다.

<도서출판 文章刊·1,500원>

떠도는 말들
「문학과 지성」問題小說選

계간「문학과 지성」지에 창간된 이래 수록된 문제소설 選集「떠도는 말들」이 도서출판 문장刊으로 출판되어 선보였다.

「문학과 지성」詩選集「우리들의 사랑法」과 마찬가지로 평론가 6人에 의해 문제작으로 선정, 재수록된 이 작품집에서 黃皙暎등 17인의 문제작을 대하는 동안 70년대 한국문학의 변모를 알 수 있다.

<도서출판 文章刊·2,000원>

# 뒤렌마트 작품의 思潮的 분석

## ——「老婦人의 訪問」을 중심으로

박장순

〈序論〉

작품에 대한 이론적 前提을 거부하는 뒤렌마트의 剛論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일종의 모순이다. 그는 실러처럼 연극을 말하지도 아니하며 브레히트처럼 어떤 목적에서 출발하지도 않는다. 〈理論의 前提·方向의 設定〉은 그의 작품활동에서 속발이며 결론으로 나타나기때문이다. 그러나 학문적 결과에 지나지 않는〈이론및 법칙〉이라할지라도 獨斷的 立場에서는 이를 규명하고 규정짓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本稿에서는 이와같은 뒤렌마트의 작품—老婦人의 訪問—세계에 대한 思潮的 分析과 아울러 작품세계가 갖는 독자성을 고찰해 보고자 한다.

1、作品世界의 獨自性

뒤렌마트는 Dramaturgie上—작품의 叙事化·非同化의 効果·Brecht의 영향을 받은 작가임에는 틀림이 없다. 그러나 Brecht가 사회적인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사건의 〈歷史化〉에 주력하였다고, 한편 그 자체에 관심을 부여함으로써 根本的인 差異를 낳게 하였다.

작품〈老婦人의 訪問〉에서도 그는 금권이면 무엇이든지 해결할 수 있다는 그릇된 진부한 진리를 확인시키려 하지 않고 인간 그 자체에 촛점을 맞춰 인간들의 양심을 얼마 만큼 타락하게 하는가를 보여주고 있다.

다시 말해서 한 인간이 현실적으로 비리를 발거되는 비극적 과정과 그 비인간화를 장엄하는 죄과에 대한 책임이 현대사회에 살고있는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다고 있다는 사실을 이는 느낌을 관객의 心奴에 울려주고 있도록 연출 상 사용 곽자 등, 이들은 像을 만드는 것이〈正義〉를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부여함으로써 사회적의 눈덩이 처럼 가신다.

물렌시민들은 그들과 함께 살던 한 시민〈일〉을 죽이는 것이〈正義〉를 할을 넣어서고 있다. 이는 가난하던 마을 사람들이〈을 유로운 시각적 처리·夢幻的 蜃面揮人·시간 장소 등 백한 생활을하게 된다는사체의 외형을 보다 자유롭실과〈실〉의 융합이 시시게 구사하는 수법을 열거해 볼 수 있겠다.

〈老婦人의 訪問〉 1幕 막이 올리면 시사회가 국민대회의 열렸다. 이번 임시국회로 이어진 모양이 목할 것은 新民 비주류 속에서 자생적력이 「매파」에 의한 반대파 진보적 인사들이 「비둘기」파로 분열해 오던 共和 「이론에는 이론으로」 선을 걸었던 그들이 1 맞서기 시작했고, 선명을 백80도 급선회, 초강경노 기치로 출발한 新民 역리를 펴는 이유는 파연 양해서, 「거리의 정치」를 지 무엇인가. 정치인의 거부 은으로만에 新聞 정 치면을 읽을 맛나 게 했다. 정치활성 화를 위한 序曲을 으로 갖춰놓다는 에 기울이다. 여하간국 회의원과 정치부기 자라는 두 「無業者」들이 활일을 찾 으듯 싶어 반갑다. ▲이 번 대화나협상보다우월해 대화분위기는 학원가로도 불어나 활활 식다. 제전절 독자로 석방된 김남조 善과 「躍論」은 이제 종 관련자중 대부분이 대학 식되어야 함것이다. 정당 생이었다는 점이다. 진작 정치 의회정치의 생명을 에 이런 대화 분위기가 여·야의 대화에 의한 정 싹텄더라면 그들은 그와 치발전에 있다. 「議會」 같은 극한적 행동을 택 한 의원들을 위한 모임이 하지 않아도 되었을 것 며 영어의「Parliament」에서 사건이 전개되는 장 이며, 「가슴아픈 사태」는 佛語의「Parler(말 는 없을수 있겠을 것이 하다」동사에 그 語源을 다. 젊은 결기 때문에 항 두고 있는 말이다. 이대 상「비관세련」이기 마련 화분위기와 「용감한 협정」 인 대학생숙과 더불고 대 학원가를 포 화를 가질수 있을뿐이 다. 모든 사회에 정숙 자신감있고 용감했던 시 대 분위기는 그들과 함 께 사라졌다. 그분들의 정 신 대학생숙과 그 분들 의 정력이 필요 하지 않을가. ▲龍頭의 기세로 막을 올린 임시국회가 국민대회의 맨앞에 외친함성 「蛇 足」로 전락되었다. 當委 으로서 본연의 尾 공전—단독운영을 초래한 역할을 회복할 조짐을보였다. 「양측의 강경자세는 너무 「매파」의 압력에 기인 新民전당대회— 카터 방한—제한 것으로 보인다. 新民 일련의 해빙·外 협의력이 「매파」에 의 경우 非主流측과 院 내 자유세력이 「비파」에 속하는 모양이다. 특히주 의 「이론」에 대한 입장 「매파」의 강경자세는 그 의 「이론」은 「합의하여 「매파」의 「강경자세」는 이와같이 현대정치사조의 제요소들을 복합·성하고있는 그의 작품 경향은 골 연극 본질에의 귀착을 위한 필부림이 아니기 때문이다.

〈결론〉

〈序論〉에서 뒤렌마트는 작가의 실현적인 무대처리 의 작품활동에서 속발이며 결론으로 나타나기때문이다. 그러나 학문적 결과에 지나지 않는〈이론및 법칙〉이라할지라도 獨斷的 立場에서는 이를 규명하고 규정짓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本稿에서는 이와같은 뒤렌마트의 작품—老婦人의 訪問—세계에 대한 思潮的 分析과 아울러 작품세계가 갖는 독자성을 고찰해 보고자 한다.

1、作品世界의 獨自性

뒤렌마트는 Dramaturgie上—작품의 叙事化·非同化의 効果·Brecht의 영향을 받은 작가임에는 틀림이 없다. 그러나 Brecht가 사회적인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사건의 〈歷史化〉에 주력하였다고, 한편 그 자체에 관심을 부여함으로써 根本的인 差異를 낳게 하였다.

작품〈老婦人의 訪問〉에서도 그는 금권이면 무엇이든지 해결할 수 있다는 그릇된 진부한 진리를 확인시키려 하지 않고 인간 그 자체에 촛점을 맞춰 인간들의 양심을 얼마 만큼 타락하게 하는가를 보여주고 있다.

다시 말해서 한 인간이 현실적으로 비리를 발거되는 비극적 과정과 그 비인간화를 장엄하는 죄과에 대한 책임이 현대사회에 살고있는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다고 있다는 사실을 이는 느낌을 관객의 心奴에 울려주고 있도록 연출 상 사용 곽자 등, 이들은 像을 만드는 것이〈正義〉를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부여함으로써 사회적의 눈덩이 처럼 가신다.

물렌시민들은 그들과 함께 살던 한 시민〈일〉을 죽이는 것이〈正義〉를 할을 넣어서고 있다. 이는 가난하던 마을 사람들이〈을 유로운 시각적 처리·夢幻的 蜃面揮人·시간 장소 등 백한 생활을하게 된다는사체의 외형을 보다 자유롭실과〈실〉의 융합이 시시게 구사하는 수법을 열거해 볼 수 있겠다.

〈老婦人의 訪問〉 1幕 막이 올리면 시사회가 국민대회의 열렸다. 이번 임시국회로 이어진 모양이 목할 것은 新民 비주류 속에서 자생적력이 「매파」에 의한 반대파 진보적 인사들이 「비둘기」파로 분열해 오던 共和 「이론에는 이론으로」 선을 걸었던 그들이 1 맞서기 시작했고, 선명을 백80도 급선회, 초강경노 기치로 출발한 新民 역리를 펴는 이유는 파연 양해서, 「거리의 정치」를 지 무엇인가. 정치인의 거부 은으로만에 新聞 정 치면을 읽을 맛나 게 했다. 정치활성 화를 위한 序曲을 으로 갖춰놓다는 에 기울이다. 여하간국 회의원과 정치부기 자라는 두 「無業者」들이 활일을 찾 으듯 싶어 반갑다. ▲이 번 대화나협상보다우월해 대화분위기는 학원가로도 불어나 활활 식다. 제전절 독자로 석방된 김남조 善과 「躍論」은 이제 종 관련자중 대부분이 대학 식되어야 함것이다. 정당 생이었다는 점이다. 진작 정치 의회정치의 생명을 에 이런 대화 분위기가 여·야의 대화에 의한 정 싹텄더라면 그들은 그와 치발전에 있다. 「議會」 같은 극한적 행동을 택 한 의원들을 위한 모임이 하지 않아도 되었을 것 며 영어의「Parliament」에서 사건이 전개되는 장 이며, 「가슴아픈 사태」는 佛語의「Parler(말 는 없을수 있겠을 것이 하다」동사에 그 語源을 다. 젊은 결기 때문에 항 두고 있는 말이다. 이대 상「비관세련」이기 마련 화분위기와 「용감한 협정」 인 대학생숙과 더불고 대 학원가를 포 화를 가질수 있을뿐이 다. 모든 사회에 정숙 자신감있고 용감했던 시 대 분위기는 그들과 함 께 사라졌다. 그분들의 정 신 대학생숙과 그 분들 의 정력이 필요 하지 않을가. ▲龍頭의 기세로 막을 올린 임시국회가 국민대회의 열렸다. 이번 임 